



종이나 필름을 금속이 부식된 것처럼

원래 에칭은 부식액을 사용하여 금속을 용해시켜서 표면 가공을 하는 기술을 말하며, 미술분야에서는 산(酸)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작용을 이용하여 동판(銅版)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 즉 부식 동판을 이르는 말이었다.

에칭은 크게 예술적 분야와 공업적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예술적 분야의 판화 에칭은 식각(蝕刻) 오목판이라고도 한다. 판재로는 일반적으로 동판을 사용하며, 이것을 곱게 연마하고 판을 조금 데운 다음 베르니를 바르고, 가죽 롤러로 얇게 펴고 기름 연기로 그슬린 다음 에칭 침으로 그려 동판 면을 노출시킨다. 다음에는 부식 액으로 화선을 오목하게 부식시키며, 계조를 만들기 위해 부식은 몇 번 나누어 한다.

이 판으로 인쇄하는 방법은 먼저

의약품이나 화장품 패키지, 고급 양주 케이스 등에는 금속성의 꺼칠꺼칠한 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 분명 재질은 종이인데 느끼는 금속과 같다. 이것은 실크스크린인쇄방법의 하나인 에칭(etching)인쇄로 표현한 것이다.

판 면에 조금 열을 가한 다음, 탐폰으로 잉크를 묻혀 오목선의 바닥까지 메운 다음에 걸레로 남는 잉크를 닦아내고, 오목선 이외의 부분에도 약간의 인쇄잉크의 얇은 막을 남겨 농담을 가감하면서 인쇄한다. 이 인쇄물에는 판 크기에 상응하는 움푹 패인 플레이트 마크가 생긴다. 농담이 풍부하고 우아한 인쇄물이 되는 하나, 판의 내쇄력이 적어 대량 인쇄에는 적당치 않다. 1판으로 100매 이상의 인쇄는 어려우며 또한 처음 인쇄된 것과 수십매 째의

인쇄물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래에 개발된 에칭인쇄는 금색, 은색 종이 또는 PVC, PET 등에 에칭잉크로 스크린방식으로 인쇄하여 화려하고 미려한 배경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고급 TAG 또는 포장케이스를 연출하고 있다.

대부분 스크린인쇄를 이용한 에칭인쇄는 실제로 부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식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부식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메시(mesh)의 곱고 거친 정도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으

며, 색깔은 에칭잉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지(기본 재질)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의 느낌은 금지를 이용하고, 은의 느낌을 갖게 하려면 은지를 사용한다. 에칭잉크는 투명잉크이며 원지나 인쇄물을 무광이나 반광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에칭잉크는 UV 경화용 잉크를 희석제 등 첨가제와 함께 사용하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희석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보관시 냉암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작업 전에는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해야 된다.

에칭인쇄는 우선 오프셋인쇄나 스크린인쇄를 한 후에 원하는 부분에 스크린인쇄를 이용해 에칭효과를 낸다. 주로 180에서 200메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메시에 따라 경화속도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에칭 인쇄된 부분은 무광이나 반광으로 바뀌어 금속의 부식된 느낌



은성정밀인쇄(주)(02-375-8411)에서 제작한 각종 에칭 인쇄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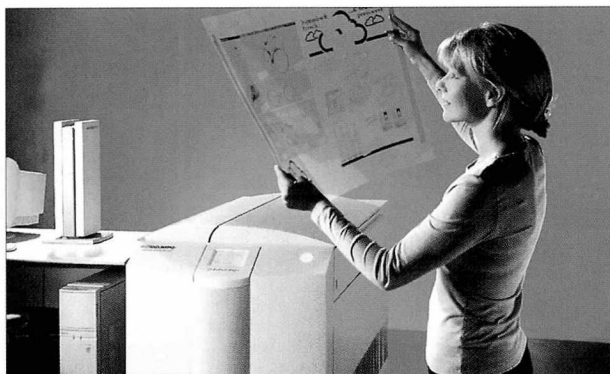
을 주는 한편, 에칭인쇄가 안된 부분은 유광효과가 있어서 인쇄물이 특이하게 표현돼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화장품 및 의약품 케이스, POP TAG, 고급 양주 케이스, 팬시용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프셋인쇄를 이용한 에칭인쇄도 개발되었으나 잉크 전이량이 적어 확실한 에칭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무광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는 예도 있다.

〈윤재호 부장〉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 시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십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프리프레스장비